

유·도가 “불교는 오랑캐 문화”... 불교 번창 경계

중국불교의 거사들 <8>

남북조 시기 배불논쟁과 거사불교(1)

-이하(夷夏)의 논쟁과 거사들의 반론-

동한 말 본격적으로 전래된 불교는 위진(魏晉)시기 정치적 실패를 거치며 남북조시기에 지배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때 유(儒)·도(道) 양가의 본격적인 반박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도교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이하지방(夷夏之防)’으로,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었다. 이런 의식은 이미 선진(先秦)시대에 그 연원을 둔다. 특히 <맹자(孟子)>의 “나는 중국문화(夏)가 오랑캐문화(夷)로 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문화가 중국문화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만약 요(堯)·순(舜)·주(周)·공(孔)의 도를 버리고 다시 오랑캐(夷狄)의 방법을 배운다면 어찌 미혹하지 않겠는가?” 등의 구절에서 그런 의식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지녔는가가 충분히 짐작된다.

승민(僧愍)의 <웅화논(熊華論)·사미론(沙彌論)·승인론(僧人論)> 등의 스님들의 반박 이외에 수많은 거사들이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기록에 따르면 애찬(哀粲)과 명승소(明僧紹), 주소지(朱昭之), 주광지(朱廣之), 사진지(謝鎮之) 등 수많은 거사들이 여러 편의 반박문을 찬술하였다. 명승소는 섭산(攝山) 정림사(定林寺)에서 20여 년을 은거해 ‘평원(平原) 거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정교론(正二教論)> <홍명집(弘明集)>권6에 수록되어 있는 도교는 장생(長生)을 중시하여 수련(修鍊)을 통하여 수정(守靜)의 경계에 도달하지만, 불교에서는 내심(內心)의 공적(空寂)에 이르러 모든 현상이 허환(虛幻)돼 참다움이 없음을 깨달으니, 도교에서는 능히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불교에서는 능히 고해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평



그림 · 김홍인

고환 ‘이하론’ 찬술 후 재가 거사들 반박 줄이어 ‘정통성 논쟁’은 외래종교 정착 위한 필연적 과정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단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남송(南宋)의 도사 고환(顧歡)이 <이하론(夷夏論)>(478)을 찬술하면서부터다. 그는 이전에 출현한 위서인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의 내용을 근거로 “불조(佛祖) 석가모니는 노자(老子)가 교화했기 때문에 그 성인(聖人)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하지만 가르침에 있어서는 도교는 성교(聖教)이고 불교는 이교(異敎), 즉 오랑캐의 가르침으로 결코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배와 수레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같지만 배는 물에서 사용하고 수레는 육지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코 함께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환의 주장은 “불교는 자비심을 말하여 생 류를 해치지 않지만 자신을 나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의 효경(孝敬)하는 마음도 없어 화하(華夏: 중화민족)의 예교(禮敎)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불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중화민족은 결코 불교를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하론>의 주장은 바로 불교계의 반박을 받았다. 혜통(慧通)의 <악고도사이하론(跋顧道士夷夏論)>과

원 거사의 반박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초점을 예의와 풍속 등의 외부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교의(敎義)로 전환함으로써 교의의 비교를 통하여 불교의 가르침이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남송 명제(明帝)시기에 상시(常侍)를 지낸 사 진지는 <여고도사서(與顧道士書)> <중여고도사서(重與顧道士書)>를 찬술해 <이하론>을 반박했다. 사 진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의 동류(人類)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군체(群體)가 있어 오랑캐던 중화민족이든 모두 인류의 공통된 본질을 지니고 있어 비록 풍속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불교와 도교의 차별을 논하고 서로에게 장점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보편적인 인성(人性)의 각도로부터 ‘이하론’을 해결하려고 했다. 주소지(朱昭之)의 <난고도사이하론(難顧道士夷夏論)>에서도 “인도와 중국의 풍속이 달라 가르침이 다르게 나타날 뿐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은 다만 ‘지극한 도(至道)’의 ‘쓰임(用)’에 따라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至道)’의 ‘지극한 제(極體)’를

‘무(無)’로 설정하고, 유(有)도 삼도가 모두 ‘무’와 연관된 표현의 형태로 파악해 ‘이하’의 구분을 짓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본체론(本體論)의 입장에서 <이하론>을 반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하론>에 대한 불교의 반박은 불교가 교의적으로 도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인성을 지닌 인류이기 때문에 ‘이하’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 본체의 입장에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말미에는 대체로 불교는 대자대비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 하니, 유·도 양가의 교의보다 크고 넓어서 오랑캐나 중국민족이 모두 신앙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불교의 반박에 대하여 도교에서는 어떤 도사가 장웅(張融)이라는 가명으로 다시 <삼파론(三破論)>(479)을 저작하게 된다. 이른바 ‘삼파(三破)’란 바로 불교가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깨어지고(入國破國),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며(入家破家), 몸이 들어오면 몸이 깨어진다(入身破身)”는 극단적인 불교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기를, “도교 가르침은 정밀하게 사유하여 ‘하나-니’를 언어 죽음이 없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 불교의 교화는 삼매(三昧)와 신통(神通)으로 ‘태어남이 없음(無生)’을 버리고 죽음을 열반(涅槃)이라고 해 죽음을 배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의 핵심은 수련해 득도한다면 죽지 않는 선인(仙人)을 이루지만, 불교는 사람들에게 삶을 떠나 열반에 들어가 강요하니, 죽음을 배우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승순(承順)의 <석삼파론(釋三破論)>, 현광(玄光)의 <변혹론(辨惑論)> 등 스님들의 반론이 나타났다. 거사중에는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작가로 유명한 유협(劉勰)이 <멸혹론(滅惑論)>을 찬술했다. 유협(465-520)은 양대(梁代)의 고승 승유(僧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양무제의 장자이며 불교학에 뛰어났던 소명(昭明)태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함께 교의를 연구했다. 그는 입적하기 몇 해 전에 출가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거사 신분으로 보냈다. 유협은 <멸혹론>에서는 <삼파론>의 주된 관점들을 하나하나 인용해 논파했다. 불교가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 “국가의 쇠망은 ‘치란(治亂)’에 있지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불교가 흥성할 때 국가가 오히려 부흥했음을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논증한다”고 반박했다. 가정을 깨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교 역시 ‘효(孝)’를 중시하지만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 다를 뿐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업인과보에 의해 출가수행이 참다운 ‘대효(大孝)’임을 논증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강상명교(綱常名敎)의 준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출가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참으로 인연(因緣)과 업감(業感)이 풀이 아니기 때문에 명교는 풀이 있는 것이다. 재가(在家)와 사문이 다른 까닭”이라 말했다. 불교에서는 여러 인연과 업감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재가와 출가수행자가 나누게 돼 각각에 적합한 두 종류의 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협 역시 당시 모든 불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히 명

교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교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통하는 당시 시대적 한계때문이었다. 또한 몸을 망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 오히려 도교의 양생술법이 자칫 잘못하면 몸을 망치게 되고, 설사 신선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소도(小道)’임을 밝히며, 나아가 불교야말로 참다운 ‘대도(大道)’임을 역설했다. 남북조시기의 이러한 ‘이하론’은 외래종교인 불교가 문화적 배경과 풍토가 다른 중국에 정착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특히 동한과 위진 시기를 거치면서 불교가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설정되면서 본토에서 자생한 유·도 양가의 비판과 공격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 자명했다. ‘이하론’은 바로 민족과 문화적 정통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는 논리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치우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출가승려보다는 오히려 재가의 거사들이 보다 적합했다. 무엇보다 출가승려는 이미 명교의 틀에서 벗어나 그 설득력이 반감된 것이 이유다. 물론 ‘이하’의 논쟁에 뛰어든 스님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배불논쟁에 있어 거사들이 전면에서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더욱 많았다. 그것은 정치와 학계, 문화 등 세속적 생활에 바탕을 둔 거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일반대중들의 호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 김진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전등록 전5권 / 백화 무문관 / 백화 벽암록 / 백화 천부경
 보살 금강경 / 보살 신심명 / 보살 중도가 / 보살 반야심경
 보살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보살 환단고기 전5권
 보살 선가귀감 / 보살 범용선사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복재로 세상을 복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책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책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책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책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국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조상의 입과 손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민속죽염**은 종아리 변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습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얏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 깔창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사·실리콘·동 99% 함유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함장

지압·동 깔창

족구세사
 실리콘
 동 99%

가격 15,000원
 *사이즈: 230-280

▶ 분사·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중각역 2번출구 100미터
 ▶ 문의·주문: 02)733-5715 011-9000-5715
 ▶ 계좌: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박해훈 함장)

NAVER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